

4/25/21

설교 제목: 야곱이 자신의 사후 장사에 관해 지시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함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47 장 27 절-48 장 22 절

(창 47:27)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 47:28) 야곱이 애굽 땅에 십칠 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백사십칠 세라

(창 47:29)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창 47:30)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창 47:31)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창 48:1)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창 48:2)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창 48:3)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창 48:4)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창 48:5)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창 48:6)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창 48:7)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 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창 48: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창 48:9)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창 48:10)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창 48:11)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창 48:12)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창 48:13)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창 48:14)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창 48:15)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창 48: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 48:17)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하여

(창 48:18)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창 48:19)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창 48:20)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창 48: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창 48:22)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창세기 저자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에 관해서 한 두 절로 간단하게 기록한 것과 달리 야곱의 죽음에 관해서는 47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50 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4 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자신의 사후 장사에 관한 지시를 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은 후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사후 장사에 관해 지시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합니다.

(창 47:27)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 47:28) 야곱이 애굽 땅에 십칠 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백사십칠 세라

(창 47:29)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창 47:30)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창 47:31)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장사를 지내기 위해 헛 사람 에브론으로부터 산 굴이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곳입니다.

(창 23:8)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창 23:9)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창 23: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창 23:15)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창 23: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창 23: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러 모든 나무가  
 (창 23:18)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창 23: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창 23:20)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지도 여섯 17 년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의 나이 130 세였는데 어느덧 147 세가 되었습니다.  
 이 17 년은 아마도 야곱 생애를 통털어 가장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죽은 줄만 알았는데 버젓이 살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아들 요셉의  
 보호와 섬김을 받으며 꿈같은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야곱은 자신과 야곱가가 궁극적으로 정착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여 어렸을 때부터 장남으로  
 여겼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야곱은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혔었습니다.  
 당시 채색 옷은 장남에게 입히는 것이었기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를 장남으로  
 여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자 먼저 손을 허벅지 아래 곧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맹세를 하라고 시킵니다.  
 환도뼈란 대퇴골 곧 엉덩이 부분에 움푹 들어간 골반을 지탱하는 뼈로 생식을 의미합니다.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어서 하는 맹세는 맹세 중에 가장 강한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고 보낼 때도 이 방식의 맹세를 시켰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유언을 통해서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머지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혹독하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야곱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그 언약에 참여합니다.

아들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자 야곱은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 11:21)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본문에서 '침상 머리에서 경배를 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야곱은 아마 침상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 입니까?

이 지팡이는 야곱이 나이들어 몸을 지탱하고 다닌 지팡이가 아닙니다.

압복강 가에서 하나님과 겨누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부터 짚고 다닌 지팡이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꼭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지팡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 후 야곱은 병이 들었고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습니다.

(창 48:1)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더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창 48:2)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창 48:3)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창 48:4)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창 48:5)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창 48:6)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것은 요셉을 장자로 여겨 장자에게 가는 두 몫을 요셉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창 48: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창 48:9)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창 48:10)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창 48:11)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창 48:12)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창 48:13)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창 48:14)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엮바꾸어 얹었더라

(창 48:15)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창 48: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 48:17)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하여

(창 48:18)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창 48:19)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창 48:20)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창 48: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창 48:22)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겔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런데 야곱은 오른 손을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큰 아들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아 그렇게 한 줄 알고 아버지를 말리고 그의 손을 바꾸려 하였지만 야곱은 자신이 다 알고 있다며 이를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이니 당연히 그가 오른손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이 장자인 에서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택하셨습니다.

(창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야곱은 택함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세상적인 질서나 사람의 공로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받은 자답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신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언약에 참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에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